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5. 8(금) 총 4매	
담당 부서	혁신행정담당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전철주, 주무관 이수용 • ☎ (044) 201-3213, 3221, 3222 	
	도시경제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익진, 사무관 박원호 • ☎ (044) 201-4845, 4844 	
	교통정책조정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지홍, 서기관 나민희, 주무관 한수증 • ☎ (044) 201-3795 	
	국제항공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이호준, 주무관 이혜신 • ☎ (044) 201-4207, 4211, 4209 	
	항공운항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최진호, 주무관 강승주 • ☎ (044) 201-2021, 4312, 4270 	
	택시산업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팀장 오송천, 서기관 박효철, 사무관 김동규 • ☎ (044) 201-4770, 4756, 4757 	
	주택기금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김지혜 • ☎ (044) 201-3337, 3338 	
	공공주택지원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최아름, 사무관 송승민, 주무관 송정근 • ☎ (044) 201-4530, 4445, 4446 	
보 도 일 시		2020년 5월 11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0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적극행정·과감한 규제혁신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다

- 국토교통 분야 1분기 적극행정·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·발표
-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성화 정책 돋보여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20년 1분기 적극행정·규제혁신 우수 사례로 “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” 등 5건을 선정하였다.

○ 올해 1분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.

<< 적극행정·규제혁신 선정사례 >>

- 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
- ②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수송, 항공 검역·방역 및 항공업계 지원

- ③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250만개의 마스크 적기공급
- ④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면허기준 완화
- ⑤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

□ 그중 돋보이는 사례는 **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**이다.

- 이 시스템은 **대규모 도시데이터**를 수집·처리하는 **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**을 활용하여 **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**한 것으로,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**확진자 동선을 10분내 분석**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.
- 특히, 빅데이터 생성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등 **28개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협력**이 필요한 데 신속한 대처 및 적극적 협업을 통해 **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**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.

* 국토부 제안 및 개발착수(2.27) → 시험운영(3.16~3.25) → 정식운영(3.26)

-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브리핑(4.10)에서 전 세계 50여 개 외신매체가 참여하였으며, 스페인통신사 EFE, 영국 로이터 통신 등 많은 외신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**놀라움과 관심을 표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상담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.**

□ **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(전년 대비 98% 감소) 타격을 받은 반면, 교민의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더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였다.**

- 이에 따라 **교민귀국을 위해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,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,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, 정부·공공기관 등의 항공료 항공사 선지급,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, 대형항공기 조정사 자격 유지 조건 완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였다.**

- 특히, 「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」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유휴 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긴급수송이 가능해졌으며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.
 - 또한, 대형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운항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정지 위기에 놓인 일부 대형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ICAO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체 비행훈련을 통해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를 지원하였다.
- 대중교통의 중단 없는 운영에도 국토부의 보이지 않는 활약이 있었다. 대중교통과 물류 업계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였다.
- 3월말경 마스크 재고가 대부분 소진되고 공적 판매물량 증가 등으로 운수종사자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국토부 주관으로 마스크 확보에 나섰다.
 - 버스·택시·택배 등 대중교통 및 물류 업계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, 국토부가 인수 및 배분 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250만개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하였다.
-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뿐 만이 아니라 택시운송 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도 시행하였다.
- 승차거부 없는 택시,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택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문턱을 기존의 8분의 1*로 대폭 낮추어 업계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.
- *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기존에는 4천대의 택시면허가 필요하나 규제완화로 500대의 택시면허만 확보하면 택시운송 가맹사업 가능

- 이를 통해 중·소규모의 새싹기업들도 업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.
- 또한, 올해 초에 군산에서 건설회사의 자금부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산시·보증공사와 함께 전담조직(T/F)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.
-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었으며, 이는 향후 유사사태에 대한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국토교통부 김정희 혁신행정담당관은 “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전철주 사무관(☎ 044-201-32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